

문 17: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답17: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성경적 근거: 로마서 3:16, 23; 5:12; 갈라디아서 3:10

질문 1: 아담과 그의 후손의 타락은 인종으로 어떤 처지에 이르게 했나?

질문 2: 죄와 늘 함께하는 것은 무엇인가?

질문 3: “비참한 처지”란 무엇을 말하고 있나? (갈라디아서 3:10 절 참조)

질문 4: 왜 타락은 비참한 것인가?

설명:

아담과 그 후손의 타락은 (1) 죄와 (2)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했다. 죄는 바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했다. 지금도 죄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런 비참함에서 스스로 벗어날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죄와 비참함은 함께간다. 죄를 짓고 행복한 사람은 있을수 없다. 죄를 짓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다. 그런데 그는 그가 병든것을 모르고 지냈다. 시간이 많이 지난후에 그는 갑자기 오는 심한 고통 속에서 그 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정규검진을 받다가 중한 병에 걸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 치료를 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게 되었다.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도 궁극적으로는 원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구속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속주를 찾지도, 의지하지도 못할 것이다. (롬 3:9-18)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됨으로써 복음의 소식을 접할 때에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며, 마음이 구속주를 향하게 된다.

비참한 처지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것을 말한다.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그를 만드신 조물주와 교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는 사람으로 타락시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즐기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비참한 처지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의 고통스러움을 맛보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소망이 없는 것이 삶에 있어 가장 힘든 것이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언제든지 힘을 얻을수 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네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사야 57:10)